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 난항 예상

■ 공기업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 공기업 선진화 대상과 방향

대상 공기업	
민영화 (27)	산업은행(캐피탈·자산운용)·기업은행(캐피탈·신용정보·IBK시스템)·인천국제공항공사·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쌍용양회·우리금융지주·서울보증보험·대우증권·대우인터네셔널·대우일렉트로닉스·현대건설·현대종합상사·하이닉스·한국항공우주공업·팬택·팬택엔지니어링·뉴서울CC·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통합 (2)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가능조정 (12)	관광공사·연세중·골프장 등 매각 석유공사·광업진흥공사·비축사업관리 등 비핵심 업무 조직·인력 감축 국민체육공단·스포츠크레디 등 매각 전기안전공사·저임무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민간 이양 -산업기술시험원·정보출연금 점진적 폐지, 순수 민간기관 전환 -3개 공단 4대보험징수업무·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국내 수출지원 기능은 중진공으로, 해외 수출지원 기능은 KOTRA로 일원화

정부가 11일 당정협의,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 투입기관 중 41개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담았다.

◇ 27개 기관 민영화, 주공·토공 통합=우선 민영화 대상으로는 산업은행·기업은행 및 자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등 27개 기관이 포함됐고, 통합할 대상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이름을 올렸다.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은 기능 재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에 이어 2차에서는 통합할 기관을 중심으로, 3차에서는 시장경쟁 여건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내 경영효율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 공기업 개혁 탄력받을까=이날 발표한 공기업개혁은 선진화라는 용어 때문에 대상기관의 규모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해졌다. 지적이다. 관공사인 민영화 대상도 애초 60개 이상으로 전망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27개에 그쳤다.

이날 발표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통합 방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문에 빠졌고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밀린 어정쩡한 교육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번 발표로 노조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과 맞물려 지자체의

반발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의 개혁안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차 개혁 방안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280여개 공기업에 대해 2~3차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 내 조직·인력 구조조정 등 경영효율화 작업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기업 민영화 광주·전남 영향없나=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인 17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된 곳은 단 1곳도 없지만 문화관광부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등 3개 공공기관을 통합할 2차

선진화 대상에 상정,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특히,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통합될 경우, 서울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도 타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과 통합될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나 통합이 거론되는 기관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민영화 대상 27개로 대폭 줄여 지자체 반발 달래

나주 이전 공공기관 1차 대상서 제외 일단은 안도

신용카드 결제 60% 육박

소액결제 증가 따라 ... 1분기 소비지출 127조중 72조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 소비지출액 중 카드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민간 최종소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57.2%로 집계됐다.

올해 1·4분기 민간소비지출액은 127조3천900억원이며 현금 서비스 및 기업구매카드 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2조9천200억원이다.

민간소비 중 카드결제 비중은 1990년 5.6%에 불과하다가 2000년 24.9%

로 늘어난 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02년 45.7%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올 들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궁핍해지면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는 카드로 결제하는 문화가 확산돼 경기침체 속에서도 카드 결제금액은 급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분야에서도 일본에 대한 서비스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일본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28억1천970만달러로 전년의 18억4천120만달러에 비해 53.1%나 증가했고 2년전인 2005년의 7억3천60만달러보다 3.9배에 급증했다.

대 일본 서비스수지는 1998년에 19억9천300만달러 흑자를 보였으나 2000년 17억6천930만달러, 2002년 5억9천320만달러, 2004년 3억310만달러로 흑자폭이 축소되더니 2005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그 폭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속도(2년 기준)는 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대 미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63억6천970만달러로 2년 전인 45억5천150만달러에 비해 39.9% 늘었고 대 유럽은 39억7천300만달러에서 62억7천350만달러로 57.9%, 대 동남아는 15억540만달러에서 41억4천240만달러로 175.2%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대 일본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는데 따른 영향이 크다.

미생물 제거 정수기 나왔어요

11일 서울 필립스 본사에서 열린 자외선 정수기 출시 기념 홍보행사에서 고객들이 태양 살균 원리를 이용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제품은 미생물과 병원균은 제거하고, 미네랄 성분은 살린 물을 제공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對日 서비스적자 2년새 4배로

여행수지 적자폭 확대 영향 ... 작년 28억달러

대 미국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63억6천970만달러로 2년 전인 45억5천150만달러에 비해 39.9% 늘었고 대 유럽은 39억7천300만달러에서 62억7천350만달러로 57.9%, 대 동남아는 15억540만달러에서 41억4천240만달러로 175.2%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대 일본 서비스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여행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는데 따른 영향이 크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속도(2년 기준)는 대

SINCE 1982

'좋은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동구청 남동성당사이)
(062) 227-9940

총장점 (금남공원앞)
(062) 227-9970

앤틱 & 원목가구

프랑스가구 SALE

프랑스 원목가구

MD 8255 책상

프랑스 앤틱가구

L 07006

MD 8447 테이블

※ 상판은 반으로 접을 수 있으며 서랍도 양면으로 있음

L 07004

■ 원목가구 : 서랍면, 밀면, 뒷면까지 MDF, PB가 아닌 100% 친환경원목만을 사용한 가구

■ 프랑스 앤틱 : 루이16세 시대의 프렌치스타일을 완벽 재현한 전통가구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홍스페이스 빌딩(구,도청 ~ 전여고사이)
문의대표번호 : 1544-0867 (주) **홍스페이스**

임대

임대 층	권장 업종
지하 2층 (구,삼복서점)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및 헬스클럽
지상 4, 7층 일부	병원, 사무실

▶ 위치 :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 연락처: 에이취에이취개발(주)
☎ (062) 412-6230